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으로 본 부부유형에 따른 부부관계의 질: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장 수 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Autonomy in Marriage, 장수지, 2008)’은 ‘주체성(Autonomous Self)’과 ‘배우자의 주체성 존중(Respect for Spouse's Autonomy)’이라는 두 개의 하위개념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이 양립하였을 때 부부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자립한 상태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 정도에 의한 부부유형과 부부관계 질(marital quality)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단계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표집된 35-75세의 기혼자 456명(남 295명, 여 291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크게 5개의 부부타입으로 유형화되었다. 이 중 부부 각자가 균형적 자립을 이루는 집단의 경우, 부부관계 질이 가장 높았으며, 갈등해결전략의 촉진성과 협조성이 동시에 높아 적응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유형은 교육수준이 높고 종일근무직에 종사하는 젊은 부부들을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부관계에서의 심리적 자립과 부부관계의 질 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관계성에 대한 추구 못지않게 부부 각자의 주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이와 더불어 균형적인 심리적 자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 및 한계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 부부관계의 질, 갈등해결전략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장수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시 남구 대연3동 314-79
Tel: 051-663-4549, E-mail : ssujie@hanmail.net

심리적 자립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Kagan & Moss, 1960)’으로 정의되어, 인간발달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인식된다. Erikson(1950)에 의하면 심리적 자립은 인성발달 및 개인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로 강조된다. 이를 달성함으로써 한 명의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 자립의 발달을 통해 안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지 않으면, 역할혼란을 경험하기 쉽고, 다음 발달단계에서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구축에 곤란을 겪는다고도 하였다. Bakan(1966)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인간발달의 두 가지 주요 국면으로 ‘개별성’과 ‘관계성’을 주창하였다. 심리적 자립은 이 중 자기신뢰, 자아실현 등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개별성의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관계성의 축에는 상호의존, 책임감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Neff & Harter, 2002). 이 두 가지 축과 개인의 적응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별성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반면, 개별성이 결여된 지나친 관계성은 부정적 자기개념을 갖기 쉬워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타인에게 의존적이므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Watson et al., 1998; Helgeson & Fritz, 1998). 이와 같이 심리적 자립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달과업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해 왔다.

그렇다면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한 대인관계 맥락에서도 심리적 자립은 관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심리학, 가족학, 사회학 등 부부관계를 다루는 사회과학 연구들의 공통적 관심은 만족스럽고 건전한 부부관계의 형성, 지속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즉, 어떠한 개인의 속성, 인성, 행동특성을 가진 남편과 아내, 혹은 부부의 조합이 행복한 결혼생활과 관련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부부간의 친밀감, 헌신, 사회적 지지, 동반행동 등과 같은 부부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행복한 결혼을 이끄는 주요 변수로 강조되었다. 반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개인의 적응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주체성, 자율성 등과 같은 개별성에 관련된 측면은 일반적인 부부관계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논의되었다. 가족치료 영역에서는 Bowen(1978)의 자아분화개념과 같은 개별성과 유사한 개념이 중시되기도 하지만, 병리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부부관계 관련 연구에서는 개별성의 측면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 연구 전반에 걸쳐 보이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tinnett & DeFrain(1985)에 의하면, 강한 가족(strong family)에게서 보이는 6가지 공통 요소는 헌신, 감사와 애정, 긍정적 의사소통, 시간의 공유, 영적 안녕감, 스트레스 대처능력으로, 건강한 가족의 특성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에 관련된 측면이 강조된다. 이는 Neff와 Harter(2002)가 지적하는 것처럼, 심리적 자립은 주로 타인과의 개별화, 청소년기의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분리 등과 관련지어 논의되는 등,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은 일차원상의 상반된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성숙한 인격발달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이 두 측면의 통합이 강조되고 있다. 개별성과 관계성이 상호균형을 이루었을 때 개인의 심리적 안녕은 최적의 상태가 된다(Helgeson, 1994a). 또한 개별성의 속성으로서의

독립성, 자기주장성 등은 남성성(masculinity)으로 대표되며, 관계성의 속성으로서의 관계지향성, 양육성 등은 여성성(femininity)으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은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양성성(androgyny)을 보유했을 때 가장 적응적인 것으로 간주된다(Bem, 1974). 이와 같은 관점들은 개별성과 관계성의 통합, 즉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자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 유지시키는 것이 개인의 적응 및 관계의 적응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일본사회의 ‘가족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¹⁾ 논의 가운데, 가족구성원 각자의 개인지향성이 가족의 결속력을 파괴하여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 서는 연구자들은(예를 들어 大坊郁夫, 1987; 久徳重盛, 1990), 한 개인으로서의 주체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황혼)이혼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체적 자기를 추구하려는 심리적 특성과 부부관계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와 같은 상황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혼률의 급증, 심각한 저출산 현상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배경요인 가운데, 개개인이 갖는 주체적 자기에 대한 갈망 내지는 자아실현 욕구 증가 등의 심리적 요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심은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 유지를 위해 고민해 보아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장수지(2008)는 심리적 자립이 대인관계의 맥락에서도 논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질적 연구(In-depth interview)를 통해 ‘부부관계에서의 심리적 자립(Autonomy in Marriage)’을 개념화하여, “부부관계 내에서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의 확립 및 유지 그리고 배우자의 주체성 존중”으로 이를 정의하였다. 기존의 심리적 자립의 개념이 자율성, 자기결정, 주체성에 초점을 둔 자기완결적인 개념이었다면,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 개념은 기존의 개념에 배우자와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이 포함된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개념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의 두 가지 하위개념은 ‘주체성’과 ‘배우자의 주체성 존중’이며, 이 두 요소가 균형 있게 양립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의 상태로 간주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 척도’를 개발하고, 양적 연구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장수지, 2008).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높은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고, 기존의 심리적 자립 척도(青木邦子, 1993)와의 변별타당도 검토에서는 기존의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변별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심리적 자립

1) 개인화란 각종 체계 내에서 개인을 행위의 주체로 보고자 하는 경향을 뜻하며,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하여 행위의 결정자로서의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개인주의 원칙에 입각한다(岩上眞珠, 2003). 目黒依子(1987)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각각의 가족 성원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부합시켰던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 개개인이 스스로의 주체성과 개성에 입각한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개인 중심적인 가족관으로의 변화를 두고 가족의 개인화라 칭하였다(장수지(2008)에서 재인용).

개념은 개인의 적응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져 왔는데,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 또한 부부관계 적응, 즉 부부관계의 질 (marital quality)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그 매개요인으로 부부관계 상호작용행동의 효과를 검토하여,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이라는 내재적 요인이 구체적으로 부부의 상호작용 행동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의 질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 부부관계를 다루는 심리학적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상호작용행동 가운데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부부관계에서의 심리적 자립의 속성이 본인의 주체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배우자와의 갈등상황에서 본인 입장을 주장함과 동시에 배우자 입장을 고려하는 갈등대처 전략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인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Sillars(1980)는 대인갈등연구의 고찰을 통해 갈등해결전략의 두 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갈등 상황 속에 처한 당사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는지에 관한 차원이며, 또 하나는 당사자 간의 상호적이고 쌍방향적인 갈등해결을 모색하는지에 관한 차원이다. 이 두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세 가지 주요 범주가 제안되었다. 그것은 ‘수동/간접전략 (passive and indirect strategies: 문제가 되는 부분에 관해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개별전략(distributive strategies: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추

구함)’, ‘통합전략(integrative strategies: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를 유지하면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을 모색함)’이다. 이 세 가지 전략이 갈등해결 및 상대방에 대한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수동/간접전략은 갈등해결 및 관계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통합전략은 갈등해결과 관계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또한 藤森立男(1989)는 Sillars의 기존의 세 범주에 ‘복종(상대방의 일방적 요구에 따름)’ 범주를 새롭게 추가하고 다차원적도구구성법에 의해 해결전략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의사소통의 ‘촉진성/억제성’과 해결방식의 ‘협조성/개별성’ 차원을 추출하였다. 이 두 차원으로 연구대상자를 유형화시켜 갈등해결과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 및 해결방식이 억제/개별형인 경우 갈등이 장기화되며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으며, 억제/협조형의 경우도 갈등해결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다. 촉진/개별형 역시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에서도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춘 Kurdek (1995)의 연구에서는 신혼부부의 대인스트레스 대처전략과 2년이 지난 후의 부부관계만족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배우자가 철회전략(말을 하지 않고 상대를 피함)을 사용하거나 교전전략(화내고 상대방을 공격하기)을 사용할 경우, 아내 혹은 남편의 관계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아내가 추종전략(상대의 의견에 무조건 따름)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남편의 관계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부부관계만족도가 상대방의 갈등해결전략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거나 철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취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 혹은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이고 협조적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갈등해결의 결과와 상대방과의 관계유지에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부관계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촉진적, 협조적 갈등해결전략이 부부관계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관찰법 내지는 질문지 조사에 의해 연구대상자의 갈등해결전략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전략 유형에 따른 결과의 차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어떠한 개인 및 관계의 속성이 각각 다른 전략유형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이 부부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Fitzpatrick et al.(1993)의 연구에서 검토한 부부관계의 부부관계 도식(marital schemata) 개념과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과의 관련을 살펴봄으로써 그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부관계 도식의 관점에 의하면, 결혼생활에서의 이데올로기(결혼에 관한 신념, 가치, 기준), 상호의존(관계성 정도), 갈등(회피 및 개입 행동)의 세 가지 차원에 의해 부부관계는 세 가지 유형의 도식, 즉 전통적, 독립적, 분리적 도식으로 구분된다. 개인은 이 도식에 기초하여 배우자로부터의 정보 및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암호화, 체계화시키게 된다(Fitzpatrick, 1990). 부부관계 도식에 의해 유형화된 개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통형은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해 전통적 이념을 가지며, 배우자와의 상호의존을 중시하

여 심각한 주제에 관한 개방적인 개입을 제한한다. 이에 비해 독립형은 결혼생활에서 비전통적이면서, 배우자와의 상호의존뿐만 아니라 자율성도 중시하며 크고 작은 갈등 사안에 관해 개방적으로 개입한다. 마지막으로 분리형은 결혼생활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위의 사안들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인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도식과 갈등해결의 의사소통 방식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도식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보고되었다. 전통형은 개방적인 토론, 해결이 보장되는 주제일 때만 건설적 의사소통을 취하였으며, 독립형은 상호간의 불일치에 대해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배우자와 함께 해결을 도모하였다. 이와 반대로 분리형은 회피, 철회의 의사소통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은 부부관계 도식에 비해 협소한 개념이기는 하나,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부관계에서 심리적 자립도가 높은 개인은,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과는 달리 가정 내의 역할 속으로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으며, 개인으로서의 자율성이 높음과 동시에 배우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므로, 부부관계 도식에서의 독립형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할 수 있다. 이에 높은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도, 즉 주체성과 배우자의 주체성 존중의 양립이 바람직한 갈등해결전략과 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은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이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부부관계는 어떤 다른 대인관계보다도 상호의존적 특징이 강하여, 각자의 심리,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한 개인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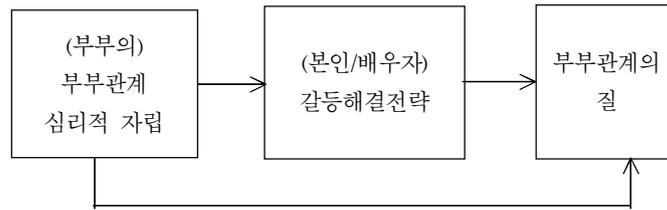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다는 ‘부부’ 단위의 연구가 더욱 적절하다. 따라서 본인 및 배우자의 자립 정도로 부부를 유형화하고, 각각의 부부 유형에 따라 부부간의 갈등해결전략 및 부부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사회에서 가족의 개인화 관련 논의 등, 가족관계 맥락에서 개인의 주체성이 갖는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일본인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 정도에 의해 유형화된 부부의 인구학적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부부의,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은 부부관계의 질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가? 셋째, 부부의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과 부부관계의 질 간에 갈등해결전략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자 및 절차

일본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Y시 A구에 거주하고 있는 35-75세의 남녀 1500명에 대해 우편조사(mail survey)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1500명은 A구청의 선거인 명부로부터 2단

계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576부(회수율 38.7%)이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혼인상태에 있는 대상자(456명; 남성 295명, 여성 281명)만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4.6세(SD=11.1)(30대 11.7%, 40대 23.3%, 50대 28.7%, 60대 27.1%, 70대 9.3%), 평균 취학년수는 14.7년(SD=2.4)이었다. 또한 취업상태는 종일 근무자가 40.9%, 시간제 근무자가 19.8%, 무직이 39.3%(정년퇴직 13.7%, 결혼 및 출산에 의한 퇴직 15.5%, 일시적 무직상태 1.8%, 취업무경험자 8.2%)의 비율로 나타났다. 통계분석에는 SPSS 15.0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Autonomy in Marriage)

부부관계에서의 심리적 자립은 ‘주체성’ 및 ‘배우자의 주체성 존중’의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이루어지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척도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장수지, 2008).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 정도를 부부 단위로 검토하기 위해, 본인 및 배우자²⁾의 ‘주체성’ 및 ‘배우자의 주체성 존중’

2) 부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 쌍방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추출에 의한 우편조

을 각각 측정하였다. 분석 시에는 각각의 항목별 값을 합산하여 항목수로 나눈 값을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체성', '배우자의 주체성 존중' 값으로 사용하였다.

주체성. '부모나 남편(아내)라는 입장 말고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를 정할 때 주로 아내(남편)가 하자는 대로 따른다(역채점)' 등의 4개의 질문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연구대상자 본인의 '주체성'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가 .61, 대상자 본인이 평가한 배우자의 '주체성'의 경우 역시 $\alpha=.61$ 이었다.

배우자의 주체성 존중. '아내(남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편이다', '아내(남편)이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화가 난다(역채점)'와 같은 3개의 질문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연구대상자 본인의 '배우자의 주체성 존중'의 내적일치도는 $\alpha=.59$, 배우자의 경우는 $\alpha=.76$ 이었다.

부부관계의 질(Marital Quality)

부부관계의 질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부부관계의 원만성, 자기성장 가능성, 자기 안정성의 측면을 평가하였다³⁾. 항목은 각각 '원

사의 성격상 부부 쌍방으로부터의 자료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에 관련된 정보는 '본인'에 의한 배우자 평가로 간접적으로 수집하였다.

3) Ryff & Keyes(1995)에 의한 subjective well-being의 하위개념에는 자기수용, 개인적 성장, 원만한 인간관계, 인생목표, 환경통제, 자율성의 6개의 차원이 포함된다. 이 중, 개인적 성장은 '자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인지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열려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성장은 끊임없는 자기개선에 의해 고양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

만하게 지내고 있다',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이다',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관계이다'의 3개이다. 위의 3문항의 내적일치도는 $\alpha=.81$ 로 부부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갈등해결전략(Conflict Management Strategy)

대인관계 갈등 연구에서 해결전략의 중요하 두 가지 차원은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는지 아닌지에 관련된 차원(촉진성)과 개인적 또는 상호의 갈등해결을 도모하려 하는가에 관련된 차원(협조성)이다(藤森立男, 1989).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차원에 맞게 다음과 같은 질문항목을 작성하여 '그렇다'~'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촉진성. '나의 의견을 배우자에게 명확하게 말한다', '나의 기분을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전달한다'의 2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두 문항의 상관관계는 본인의 경우 $r=.82(p<.001)$, 배우자의 경우 $r=0.80(p<.001)$ 로 나타났다.

협조성. '배우자와의 합의점을 구한다', '배우자와 대립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의 2문항으

기수용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자신이 갖는 여러 측면의 인정 및 수용'으로 정의되며 자기관의 안정에 의해 고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건강의 하위 차원으로서의 자기(self)의 안정화 및 성장화의 2개의 중요성이 시사되나,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적응 지표로 옮겨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의 측면은 각각 관계성의 자기성장, 안정화에 관련된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로 측정되었으며, 두 문항의 상관계수 r 은 본인의 경우 $0.31(p < .01)$, 배우자의 경우 $0.51(p < .01)$ 로 나타났다.

갈등해결전략의 ‘촉진성’ 및 ‘협조성’은 각각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결 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에 의한 부부의 유형화

부부의,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Autonomy in Marriage; 이하 AM으로 표기) 정도가 갈등해결 전략 및 부부관계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본인과 배우자의 AM 정도로 부부의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주체성’, ‘배우자의 주체성존중’의 4개의 점수로 계층적 군집분석(Ward 방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군집(cluster)이 도출되었다(그림 2).

가장 먼저 도출된 군집인 C1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주체성은 높으나, 배우자의 주체성존중은 낮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C2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체성, 배우자 주체성존중이 골고루 높아 부부 쌍방의 AM 정도가 높은 집단이다. C3은 특징적으로 본인의 주체성이 낮은 집단이며, C4는 본인과 배우자의 AM 2요인이 전반적으로 낮은 집단이다. C5는 부부 둘 다 보통 정도의 AM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다. 또한 각각의 군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분포를 보면, C1은 54명(11%), C2는 129명(27.4%), C3은 146명(30.3%), C4는 68명(12.9%), C5는 87명(18.4%)의 분포를 보여, 본 연구의 대상자 중의 반수 이상이 C2, C3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개의 부부 유형의 인구학적 특징

AM에 의해 분류한 5개의 부부유형이 연구 대상자 본인의 1) 성별(남/여), 2) 연령(30대/40대/50대/60대/70대), 3) 학력(중졸/고졸/2년제 대졸/4년제 대졸 이상), 4) 취업형태(종일근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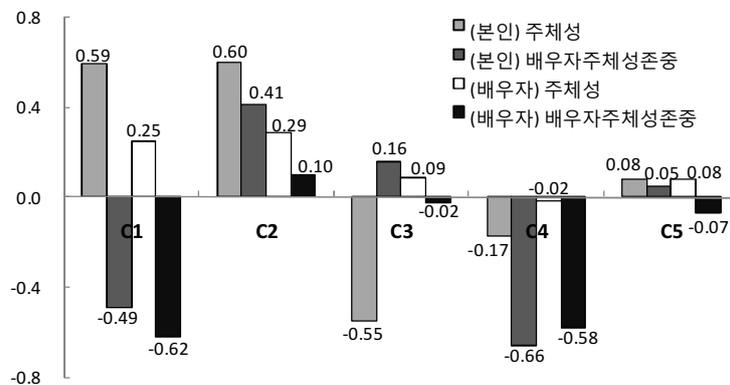


그림 2.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AM) 수준에 의한 5개의 부부 유형

주. 각 군집 특징의 가시화가 용이하도록, 본인과 배우자의 AM값을 중심화 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표 1.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AM) 수준에 의한 부부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군집(부부유형)	C1	C2	C3	C4	C5	합계	χ^2
특징	부부가 '주체성'만 높음	부부 둘 다 자립 2요인이 높음	본인의 '주체성'이 낮음	부부 둘 다 자립의 2요인이 낮음	부부 둘 다 중간 정도의 자립		
N(%)	54 (11%)	129 (27.4%)	146 (30.3%)	68 (12.9%)	87 (18.4%)	484 (100%)	
성 별	남	38.9	54.3	32.9	51.5	47.1	15.239***
	여	9.8	32.6	22.3	16.3	19.1	
	합계(%)	100	100	100	100	100	
연 령	30대	9.3	20.2	8.9	8.8	10.3	25.391*
	40대	8.5	44.1	22.0	10.2	15.3	
	50대	10.9	25.9	17.8	24.7	36.8	
	60대	12.7	29.6	24.0	28.1	19.1	
	70대	12.0	27.8	29.5	25.3	25.0	
	합계(%)	100	100	100	100	100	
취 업 상 태	종일근무	47.1	53.2	26.7	43.9	46.4	40.624***
	시간제근무	12.4	34.0	18.6	14.9	20.1	
	정년퇴직 /은퇴	21.6	17.7	20.7	19.7	22.6	
	결혼출산에 의한 퇴직	11.8	12.1	25.2	9.1	15.5	
	취업무경험	8.1	20.3	45.9	8.1	17.6	
	합계(%)	100	100	100	100	100	
학 력	중졸	3.7	2.3	6.2	1.5	0	32.293***
	고졸	13.3	20.0	60.0	6.7	0	
	2년제 대학 졸업	18.5	11.6	41.4	16.2	23.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0.1	15.2	41.4	16.2	17.2	
	합계(%)	100	100	100	100	100	

***p<.001, **p<.01, *p<.05

주: 수치는 모두 비율(%)을 나타냄.

각 셀의 상단(우측 붙임)은 각각 군집 내 비율, 하단(좌측 붙임)은 인구학적 변수 내 비율을 나타냄.

간제근무/정년퇴직 및 은퇴/결혼출산에 의한 퇴직/취업무경험)와 같은 인구학적 특징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보기 위해, 5개의 군집 및 인구학적 변수 내의 비율을 살펴보고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우선, 5개의 부부유형에 따른 (연구대상자 본인의)성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chi^2(4)=15.239(p<.001)$ 로 유의하였으며, 연령, 학력, 취업형태와의 관련에서도 각각 $\chi^2(16)=25.391(p<.05)$, $\chi^2(20)=40.624(p<.001)$, $\chi^2(16)=32.293(p<.001)$ 으로, 5개의 부부유형에 따라 인구학적 요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부 쌍방이 AM 2요인을 양립하고 있는 C2와 본인의 주체성이 낮게 나타났던 C3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 중 C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44.1%), 종일근무자의 34.0%, 4년제 대학 졸업자의 32.5%가 C2에 속하였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이며 종일근무직에 종사하는 젊은 부부가 C2에 속할 가능성이 많음을 뜻한다. 이에 비해 C3은 다음과 같은 인구학적 특징을 갖는다. C1~C5 가운데 여성의 36.4%가 C3에 속해 있었으며, 중졸자의 60.0%, 고졸자의 41.4%, 시간제근무자의 30.1%가, 결혼출산에 의한 퇴직자 중 45.9%, 취업 무경험자 중 52.6%가 C3에 속하였다. 따라서 이로써 C3은 취업전선에서 벗어나 있거나 혹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고 중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부부관계에서는 낮은 '주체성'을 보이는 전통적 여성과 그들의 남편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5개의 부부유형은 성별, 연령, 학력, 취업형태와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는데, 이를 남녀로 나누어 동일하게 χ^2 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AM에 의한 부부유형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가 크게 부각되었다. 여성의 경우, 취업형태에 의한 부부유형의 빈도차이가 유의하여($\chi^2(4)=16.97$, $p<.01$), 취업여성 중에는 C2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비취업여성 중에는 C3이 46.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학력에 의한 빈도차이 또한 유의하여($\chi^2(8)=18.50$, $p<.0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여성은 C2에 가장 많이 속해 있었으며(30.8%), 고졸 미만의 여성은 C3에 45.4%로 많이 속해 있었다.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AM)에 의한 5개의 부부유형과 부부관계 질의 관계: 부부간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검토

AM에 의한 5개의 부부유형과 부부관계 질 간의 관계 및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기 전에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부유형과 본인 및 배우자의 AM 주체성과 배우자의 주체성존중, 갈등해결전략 촉진성과 협조성, 부부관계 질 간의 상관관계(표 2) 및 부부유형에 따른 갈등해결전략과 부부관계 질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차이검정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5개 유형 간의 다중비교를 위해 Tukey방식을 취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분석 결과, 본인 및 배우자의 촉진성, 협조성, 부부관계 질의 5개의 종속변수 전부에 대해 부부유형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촉진성은 $F(4, 479)=11.74(p<.001)$, 협조성은 $F(4, 479)=14.18(p<.001)$ 였으며, 배우자의 촉진성은 $F(4, 477)=4.375(p<.01)$, 협조성은 $F(4, 479)=14.18(p<.001)$, 부부관계 질은 $F(4, 451)=27.32(p<.001)$ 이었다.

표 2. 상관관계

	C1	C2	C3	C4	C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본인)주체성	.35	.61	-.73	-.17	.03								
② (본인)배우자존중	-.36	.47	.19	-.54	.03	.13							
③ (배우자)주체성	.08	.12	-.06	-.09	-.05	.17	.20						
④ (배우자)배우자존중	-.26	.22	.12	-.27	.05	.05	.52	.01					
⑤ (본인)촉진성	.01	.25	-.07	-.22	-.01	.21	.27	.03	.39				
⑥ (본인)협조성	-.12	.12	.13	-.28	.05	-.02	.42	.09	.26	.18			
⑦ (배우자)촉진성	-.07	.08	.12	-.13	-.05	-.03	.26	.31	.17	.22	.23		
⑧ (배우자)협조성	-.15	.07	.13	-.16	.03	-.05	.31	-.05	.58	.31	.45	.12	
⑨ 부부관계의 질	-.28	.21	.13	-.30	.09	.10	.52	.10	.65	.36	.30	.27	.46

표 3. 부부유형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의 갈등해결전략, 부부관계 질의 차이검정(일원배치분산분석결과)

	본인				배우자				부부관계 질	
	촉진성		협조성		촉진성		협조성		M	SD
	M	SD	M	SD	M	SD	M	SD		
C1	6.63	1.48	5.69	1.21	6.30	1.70	5.09	1.70	9.94	2.69
C2	7.12	1.17	6.30	1.19	6.76	1.37	5.84	1.41	12.72	2.19
C3	6.44	1.31	6.29	1.01	6.82	1.32	5.95	1.28	12.36	2.10
C4	5.85	1.46	5.28	1.03	6.15	1.21	5.15	1.19	10.03	2.22
C5	6.54	1.12	6.18	0.91	6.43	1.18	5.76	1.09	12.35	2.07
합계	6.58	1.34	6.06	1.13	6.58	1.36	5.68	1.36	11.89	2.45
F(4, 451~479)	11.74***		14.18***		4.375**		7.372***		27.32***	
post hoc	C1=C5>C4** C2>C5*		C2=C3>C1** C2=C3=C5>C4***		C2>C4* C3>C4**		C3>C4*** C2=C3>C1=C4** C5>C1=C4*		C2=C3=C5>C1=C4***	

***p<.001, **p<.01, *p<.05

다중비교의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어 부부유형과 부부관계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부부간 갈등해결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표 4). 구체적으로, model 1은 부부유형의 부부관계 질에 대한 직접효과를 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이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model 2-1~model 5-2의 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4.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AM) 수준에 의한 부부유형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갈등해결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토) (N=448)

		model 1	model 2-1	model 2-2	model 3-1	model 3-2	model 4-1	model 4-2	model 5-1	model 5-2
종속변수		부부관계 질	(본인) 촉진성	부부관계 질	(본인) 협조성	부부관계 질	(배우자) 촉진성	부부관계 질	(배우자) 협조성	부부관계 질
		β	β	β	β	β	β	β	β	β
부부유형	C1	-.01	.21***	-.07	.14*	-.04*	.05	-.02	.00	-.01
	C2	.49***	.45***	.35***	.42***	.40***	.20**	.45***	.23**	.40***
	C3	.45***	.18**	.39**	.40***	.37***	.24**	.40***	.22**	.37***
	C5	.37***	.22***	.30***	.32***	.30***	.08	.35***	.16*	.31***
(본인) 갈등해결전략	촉진성			.32***						
	협조성					.21***				
(배우자) 갈등해결전략	촉진성							.21***		
	협조성									.38***
성별(남=0, 여=1)		-.00	.05	-.02	.036	-.01	-.01	.00	.03	-.01
연령		-.08	.09	-.11*	.05	-.09	.06	-.09	-.09	-.05
학력		.07	-.01	.07	-.06	.08	.07	.05	-.11*	.11*
(본인)취업유무		-.03	-.01	-.03	-.01	-.03	.01	-.03	.00	-.03
(배우자)취업유무		-.10	.00	-.10*	.04	-.11*	.01	-.10*	-.10	-.06
F		15.53***	6.20***	19.41***	6.24***	15.13***	2.10*	15.36*	3.31**	23.97***
R ²		.22	.11	.31	.11	.26	.04	.26	.06	.35

***p<.001, **p<.01, *p<.05

주: C4가 기준변수임.

C1:본인, 배우자 둘 다 주체성은 높으나, 배우자의 주체성존중은 낮은 집단

C2:본인, 배우자가 AM 2요인이 높은 집단

C3:본인의 주체성만 낮은 집단

C4:본인, 배우자의 AM 2요인이 낮은 집단

C5:부부가 중간 정도의 AM 집단

model 2-1, 3-1, 4-1, 5-1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부유형을 더미변수로 투입하고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본인 및 배우자의 갈등해결 의사소통 촉진성, 협조성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model 2-1, 3-2, 4-2, 5-2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갈등해결 의사소통 촉진성, 협조성을 각각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관계 질에 대한 부부유형의 직접적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인 model 1의 결과, 부부 둘 다 AM 2요인이 낮은 집단인 C4를 기준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부부 각자가 '주체성'만 높고 '배우자 주체성존중'이 낮은 C1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C2, C3, C5의 경우 부부관계의 질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각각 $\beta=.49$, $\beta=.45$, $\beta=.37$, $p<.001$). model 1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은 부부관계 질의 22%의 분산을 설명하였다.

model 2-1에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부유형 C1, C2, C3, C5는 부부 둘 다 자립 2요인이 낮은 C4에 비해 본인의 갈등해결 의사소통 '촉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부부 둘 다 AM 2요인이 높은 C2의 경우, 표준편회귀계수 $\beta=.45(p<.001)$ 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model 2-2의 결과로부터 연구대상자 본인의 '촉진성'은 부부관계의 질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beta=.32$, $p<.001$). 다음의 model 3-1, 3-2의 결과로부터는, C4에 비해 C1, C2, C3, C5의 경우 본인의 갈등해결 의사소통 '협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2, C3은 각각 $\beta=.42$, $\beta=.40(p<.001)$ 로 협조성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배우자와의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협조성'이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는 변수임이 입증되었다($\beta=.21$, $p<.001$). model 4-1, 4-2은 배우자의 갈등해결 의사소통 '촉진성'에 관한 분석이며, 여기서는 C2, C3만이 배우자의 '촉진성'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각각 $\beta=.20$, $\beta=.24$, $p<.01$), 배우자의 '촉진성' 역시 유의미하게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beta=.21$, $p<.001$). model 5-1, 5-2는 배우자의 '협조성'에 관한 분석으로, C4과 비교하였을 때 C2, C3, C5는 유의미하게 배우자의 '협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협조성'은 부부관계의 질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beta=.38$, $p<.001$). 또한 model 2-2, 3-2, 4-2, 5-2에서의 부부관계 질의 분산설명력은 26~35%로 높은 편이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우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유의미한 관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유의미한 관계,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Baron & Kenny, 1986). 이 때 매개변수 추가로 인해 독립변수의 β 계수가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이 되었을 때는 완전매개(full mediation), β 계수 값이 감소하지만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매개(part mediation)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곽소영과 손은정, 2008을 재인용).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model 2-1, 3-1, 4-1, 5-1에서 부부 둘 다 AM정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본인 및 배우자의 촉진성과 협조성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model 1에서의 부부유형의 β 계수는 model 2-2, 3-2, 4-2, 5-2에서 각각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미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갈등해결전략의 부분매개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부부관계에서의 심리적 자립(AM)이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본인 및 배우자의 AM 수준에 의해 부부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부부유형이 가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부부유형에 의해 부부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갈등해결전략이 그 사이의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군집분석에 의해 유형화된 5개의 부부집단은, 부부각자의 주체성만 높은 집단(C1), 부부 둘 다 자립 2요인이 높은 집단(C2), 본인의 주체성만 낮은 집단(C3), 부부 둘 다 자립의 2요인이 낮은 집단(C4), 부부 둘 다 중간정도의 자립집단(C5)의 성격을 보였다. 인구학적 특징을 보자면, 특히 이 중 C2에게서는 고학력, 중일근무직 종사자의 높은 비율 등 비전통적 부부가 가진 특징이, C3에서는 비취업자 내지는 시간제 근무자인 전통적 여성이 많이 포함된 전통적 부부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났으나, 그 외의 집단에서는 두드러진 인구학적 특징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부유형과 부부관계 질 간의 관계, 그 관계 사이의 갈등해결전략 매개효과 검토에 의해 밝혀진 결과를 부부유형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유형과 부부관계 질의 직접적 영향 검토에서 C2의 경우 부부관계 질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C3 역시 높게 나타났으나,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검토한 결과, 배우자와의 상호작용행동은 C2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즉, C3의 경우 본인의 갈등해결 '촉진성'은 낮게, '협조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C2의 경우 양방이 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촉진성과 협조성은 둘 다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배우자와의 대립을 피해 합의점을 모색하고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적응적인 부부관계 구축의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였다. 갈등해결 의사소통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촉진성 및 협조성의 두 가지 측면을 병행하는 것이 문제해결 그 자체와 관계만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Kurdek, 1995; 藤森立男, 1989; Sillars, 1980), C2는 연구대상자 스스로가 평가한 관계의 질이 높을 뿐 아니라, 부부관계 상호작용 또한 적응적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아내의 교육수준, 경제력과 부부 간의 의사소통의 관계를 검토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내의 수입 정도와 대등한 부부관계 형성이 정적 관련을 가지며(Wesson, 1996), 아내의 교육수준, 수입 정도가 높을 때, 남편이 아내의 삶의 방식을 더욱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아내에 대한 공감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한다(平山順子 등, 2001; 柏木惠子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프로필 검토로부터 C2이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취업여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내가 가정 내에서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고 부부관계 내에서의 주체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동시에 남편은 이와 같은 아내의 입장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부가 상호 촉진적이면서도 협조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취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는 Fitzpatrick et al.(1993)에

의해 개방적 의견교환, 자율성과 상호의존을 동시에 중시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 ‘독립적 부부도식’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의 주체성이 특히 낮게 나타난 C3의 경우, C2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부부관계 질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부부간의 상호작용행동은 C2의 그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C3에 속한 대상자 본인은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직접적, 개방적인 의사소통전략을 덜 취하였다. C3에는 비취업자인 전통적인 타입의 여성이 많으므로 이로 인해 가정 내의 경제적 지위 부재가 있을 수 있고, 가정 외적인 부분에서의 자아실현보다는 가정 내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부부관계에서의 주체성이 낮게 나타나, 부부간의 개방적 의견교환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한편, 각자의 주체성만이 높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C1의 경우, 부부관계 질을 낮게 평가하였다. C1은 전체 대상자의 11%를 차지하는 가장 소수 집단이었으며, 갈등해결전략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본인의 ‘협조성’이 C4에 비해 정적으로 유의하기는 하나 다른 군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고 특히 배우자의 ‘협조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조화와 타협을 도모하고자 하는 태도결여와 직결되며 이것이 결국 부부관계 질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Helgeson(1994a)의 지적과 같이 자신에게 몰두한 개별성만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타인을 배제하는, ‘관계성이 결여된 개별성(Helgeson의 표현대로라면 unmitigated agency)’ 성향과 매우 흡사하며, unmitigated agency 성향이 강한 개인이 대인관계 관련 문제를 많이 보고한다는

연구결과(Helgeson & Fritz, 1998)와 본 연구결과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사회에서의 ‘가족의 개인화’ 논의에서, 가족구성원들의 개인지향성이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조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주체적 성향 자체를 문제시하였다라고 하기보다는, C1과 같이 다른 가족구성원을 배제한 채 본인의 개별성,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다중회귀분석에서 기준변수로 사용된 비자립형 부부인 C4는 부부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에서 다른 부부집단에 비해 가장 적용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 쌍방이 AM의 두 하위요소인 ‘주체성’과 ‘배우자 주체성존중’을 양립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AM의 두 요소가 다 충족되지 못하거나 그 중 한 요소가 결여된 경우라도 부부관계에서의 적응적인 상호작용행동이 어렵고 만족스러운 관계형성이 힘들 수 있으므로,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주체성을 확립하면서도 상대방을 개별적인 개인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 연구 혹은 가족관계 연구에서 관계 내에서의 상호의존성 측면을 주로 강조해 왔다면, 주체성, 심리적 자립과 같은 개별성에 관련된 측면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의의라고 하겠다. 심리학 연구에서 개별성은 흔히 관계성과 일차원상의 양극의 개념으로서의 위치를 점해 왔다. 그러

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부관계에서 개인의 주체성과 배우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부부관계 질을 높였으며, 이것이 배우자와의 분리와 반목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촉진적이면서도 협조적인 의사소통전략을 취하는 등, 배우자와의 더욱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졌다. 이는 향후 부부관계 연구에서 심리적 자립과 같은 개별성의 측면을 부부관계 적응을 위한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단,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완결적인 개별성을 지양하고 배우자의 개별성 또한 수용, 존중하는 것이 부부관계 적응에서는 중요한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AM가 부부관계 질에 이르는 매개과정을 갈등해결전략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매개효과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부부의 AM과 부부관계 질의 직접적 관계에서는 자립 양립형인 C2와 본인 주체성 저조군인 C3의 부부관계 질의 수준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나,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검토를 통해 그 두 집단 간의 부부관계 상호작용행동의 차이점이 밝혀졌다. 즉,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를 단순히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상세히 규명함으로써 독립변수 효과에 관한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심리학 연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매개효과모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상호협조적 자기관(Markus & Kitayama, 1991)을 가진 집단주의사회에서, 부부 상호간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부부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일본사회는 개인의 신념과 이익을 추구하고,

확고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보다 친족, 직장, 학교, 이웃 등의 소속집단과의 조화와 원만한 관계 유지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집단주의적 사회이다(秋山弘子, 1997). 또한 일본문화는 자기주장보다는 타인배려의 규범과 함께 전통적 성역할규범이 강하게 지배해 왔다(東洋, 1994). 그러나 일본사회에서도 점차 서구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중시되어 온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 매몰되어 주체성이 결여된 삶을 살거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정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젊은 이들은 본인의 욕구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늦추며, 중장년층에서는 결혼생활에서 본인의 자아실현이 충족되지 않아 황혼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한국사회에서의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학문적, 사회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쪽 요인만을 검토하는 것을 문제 삼고, 부부단위의 AM 정도가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의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대신 연구대상자(본인)에 의한 간접적 측정을 시도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조심스러울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부부 쌍방의 자료에 의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M→갈등해결전략→부부관계 질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방법으로 횡단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에는 부족함

이 있다. 부부관계 질이 높기 때문에 AM 또한 높아진다는 역인과 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해 갈등해결전략 매개효과를 검토하여, 부부관계 질이 높다고 해도 갈등해결전략은 동일하지 않음을 밝혔지만, 향후 인과의 방향성을 특정짓기 위한 종단적 방법에 기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확률추출에 의해 표집된 대상자에게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진행되어 표본의 대표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진행의 과정에서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에 큰 초점이 두어졌다. 그 방편으로 연구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척도 이용을 간편화하였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의 질은 세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갈등해결전략의 협조성 측정을 위해 사용한 두 문항은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 도구의 타당도면에서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곽소영, 손은정 (2008). 이성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충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77-195.

장수지 (2008).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의 개념화 및 척도의 타당도 검토: 일본 중·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양적 통합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75-103.

秋山弘子 (1997). 젠더와 문화-男性と女性の社會的ネットワーク. 柏木惠子, 北村忍, 東洋(編). *文化心理學 理論と實証*. 東京大學出版會.

青木邦子 (1993). 高齢化社會における女性 (文化的土壤と幸福感)-自立概念の整理と自立性尺度の作成-.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紀要* 54, 79-122.

東洋 (1994). *日本人にしつけと教育: 發達の日米比較にもとづいて*. 東京大學出版會.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An essay on psychology and religion*. Chicago, IL: Rand McNally.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em, S.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大坊郁夫 (1987). 社會の中の家族. 長田雅喜(編). *家族關係の社會心理學*, 福村出版.

Fitzpatrick, M. A. (1990). Models of marital interaction. In H. Giles & W. P. Robinson(Eds.), *Handbook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London: Wiley.

Fitzpatrick, M. A., Fey, J., Segrin, C., & Schiff, J. L. (1993). Internal working models of relationships and marital communication.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2(1, 2), 103-131.

Helgeson, V. S. (1994a). Relation of agency and

-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12-428.
- Helgeson, V. S., & Fritz, H. L. (1998). A theory of unmitigated commun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 173-183.
- 平山順子, 柏木恵子 (2001). 中年期夫婦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態度. *発達心理學研究*, 5, 72-83.
- 久徳重盛 (1990). *新母原病*. サンマーク出版.
- 岩上真珠 (2003). *ライフコースとジェンダーで読む家族*. 有斐閣コンパクト.
- 柏木恵子, 平山順子 (2003). 結婚の“現實”と夫婦關係満足度との關連性-妻はなぜ不満なのか. *心理學研究* 74(2), 122-130.
- 藤森立男 (1989). 日常生活にみるストレスとしての對人葛藤の解決過程に關する研究. *社會心理學研究* 4, 108-116.
- Kagan, J. W., & Moss, H. A. (1960). The stability of passive and dependent behavior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Child Development*, 31, 577-591.
- Kurdek, L. A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53-164.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目黒依子 (1987). *個人化する家族*. 勁草書房.
- Neff, K. D., & Harter, S. (2002). The role of power and authenticity in relationship styles emphasizing autonomy, connectedness, or mutuality among adult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6), 835-857.
- Ryff, C. D., & Keyes, C. L.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illars, A. L. (1980). The equational and distributional structure of conflict interactions as a function of attributions concerning the locus of responsibility and stability of conflicts. In D.Nimmo(Ed.), *Communication yearbook. IV*.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Stinnett, N., & DeFrain, J. (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Little, Brown.
- Watson, P. J., Sherbak, J., & Morris, R. J. (1998). Irrational beliefs,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173-179.
- Wesson, L. (1996). Relative income, power, perceived equit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career familie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 and Engineering*, 57(1-B).
- 1 차원고접수 : 2009. 2. 7.
심사통과접수 : 2009. 3. 6.
최종원고접수 : 2009. 3. 19.

**Marital Quality according to Couple Type made pattern
by Autonomy in Marriage: Mediation Effect
of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Sujie Chang

Kyungshung University

Autonomy in Marriage(AM; Chang, 2008) considers the compatibility state of 2 sub-factors(Autonomous Self, Respect for Spouse's Autonomy) as psychological autonomy in the context of marriage. This paper purposes to examine the effect of AM on marital quality and the mediation effect of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Mail survey was conducted on 456 Japanese married men and women sampled by probability sampling method in ages between 35 and 75. Results indicated that (a)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5 types of couple by the degree of AM with differ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 in the case of group where husband and wife had high degree of AM, the marital quality was highest; and also (c) the group with high AM used adaptive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These results empirically corroborates that AM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rital life. Furthermore, results suggested that the pursuit of autonomy was as important as the pursuit of connectedness in marriage and the importance of equivalent autonomy at the same time.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Autonomy in Marriage, marital quality, conflict management strategy